

해남군 양식장 갯생이모자반 처리 총력전

5월부터 1255t 77% 수거...수은 따라 재발생 우려

9월 김양식장 피해 막기 처리비용 지원·집하장 설치

해남군이 '바다의 불청객' 갯생이모자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해남지역 15개 어촌계 50여개 다시마·전복 양식장에 밀려든 갯생이모자반 수거 작업을 대부분 마무리했지만 김 양식 시작 시기와 맞물려 자칫 생산에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26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해남군 송호·어불·땅골·어란 해역 일대 다

시마·전복 양식장으로 유입된 갯생이모자반 중 77% 수준인 1255t을 수거해 처리했다. 방지했다가는 다시마 성장에 악영향을 미쳐 상품성도 나빠질 뿐 아니라 수거할 때 들어가는 노동력도 만만치 않다는 게 해남군 입장이다. 해남군은 전체 6개면 19개 어촌계 어장(944.7ha)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일대 어장으로 유입된 갯생이모자반 규모가

2000t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갯생이모자반의 경우 바다수온이 24도 이상이 되면 녹아내리는데다, 다음 달 중순이면 어민들의 다시마 채취도 마무리되는 만큼 군은 어민 피해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양식장 부표에 녹아내리지 않고 일부가 남아있어 바다수온이 적정 온도를 유지하게 될 경우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어민들이 9월부터 김 양식에 들어가는 만큼 자칫 김 생산량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해남군은 이같은 점을 들어 유료비 명목으로 15개 어촌계에 2000만원의 갯생이모자반 처리비용을 지원한 데 이어 8월 추가 경정예산으로 7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해상에서 수거 즉시 처리할 수 있는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7곳을 설치할 계획이다.

해남군은 또 내년에도 5000만원을 들여 김, 미역·다시마 양식장 정화사업을 벌인다는 구상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매년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갯생이모자반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음악을 배달해 드립니다

해남 가학산자연휴양림

공연팀 숙소 보내 연주

숙소에서 듣고 싶은 음악을 배달받는다면 어떤 기분일까.

해남군이 다음달 6일까지 가학산자연휴양림을 찾는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진행되는 '음악도 배달되나요? 숙소까지 배달음악회'에 가다.

휴양림 산막과 캠핑장 등에 머무르는 여행객들이 요청하면 공연팀을 숙소로 보내 연주를 들려준다는 게 행사 취지다. 무대 중심 공연 대신, 직접 여행객들에게 찾아가 함께하는 공연을

펼쳐보자는 의도도 반영됐다.

피아노와 색소폰(사진), 가요로 이뤄지는 1코스와 통기타·색소폰 공연이 주축인 2코스로 나누어 취향에 맞게 음악을 요청할 수 있다. 자녀를 동반한 가족들에게 동요 선물이 배달되고 기념일을 알려주면 축하파티형 음악회도 열린다. 예전 초등학교에서 볼 수 있었던 품격도 원하는 관광객들에게 배달돼 연주해드린다.

배달 공연은 대략 오후 7시30분부터 30분 가량이다.

한편, 해남군은 다음달 4일 오후 7시30분부터 '제 5회 가학산 힐링음악회' '학이랑 산이랑 강강술래' 공연을 연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관광명소 담은 벽화

해남 땅끝마을

또 하나의 볼거리

해남 땅끝마을에 볼거리가 하나 더 생겼다. 최근 땅끝마을 관광관리사무소 외벽에 마을을 담은 벽화가 그려지면서다.

땅끝마을의 상징인 땅끝 표지석이 큼직하게 그려졌고 한반도 모양을 꼭 닮은 땅끝마을 전경, 일출 명소인 매향, 달마산의 신비로운 암자 도솔암 등이 고루 담겼다.

동양화가인 조종성 작가의 작품으로, 지난해 처음 방문한 땅끝마을에 대한 감성을 벽화에 풀어냈다.

해남군은 이번 벽화조성을 계기로 주요 관광지 유휴공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벽화를 그려넣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명사십리 해수욕장 쿨 콘서트

'울랄라세션'·'빅맨 싱어즈' 출연

29일 피서객들과 DJ 댄스 파티

완도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에서 오는 29일 피서객들과 함께하는 '블루 쿨(COOL) 콘서트'가 열린다.

명사십리 해수욕장은 주변 울창한 소나무 숲과 캠핑장, 은빛고운 모래로 명성이 나 연간 100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대표적 지역 해수욕장이다.

국내 실력과 4인조 남성그룹 울랄라세션이 '블루 COOL 콘서트'에 나서 피서객들과 흥을 돋운다. 또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과 어울리는 댄스 파티 공연도 곁들여진다.

완도군은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전문 DJ를 투입하고 팝페라 그룹 '빅맨싱어즈' 등도 초청, 무더위를 날릴 공연을 선사할 예정이다. /완도=정은조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열대야 날릴 문화축제 2제



해남군 여름밤 공연 페스티벌

내달 8~12일 매일밤 군민광장에서

팝페라·갈라쇼·콘서트·영화상영

열대야를 잊을만한 여름밤 축제가 해남에서 펼쳐진다. 해남군은 다음달 8일부터 12일까지 군민광장에서 '2017 땅끝 한여름밤의 문화축제'를 연다.

축제는 매일 밤 8시부터 퓨전타악그룹의 타악 콘서트와 비보이 댄스, 팝페라, 뮤지컬 갈라쇼, 가요콘서트, 최신 영화상영 등으로 나뉘어 다양하게 진행된다. 군민합창단, 다양한 창작 동아리의 즐길거리도 마련된다.

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17 지방문화회관 기획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지원받은 복권기금으로 치러진다.

군 관계자는 "여름철, 야외에서 무더위를 잊을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신우철 완도군수가 최근 완도군 군외면 과수 농가를 방문해 해변포도 작황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완도군 제공>

해풍 먹고 자란 완도 '해변 포도' 본격 출하

정정한 바닷바람을 맞고 자란 완도 '해변 포도'가 제철을 만났다.

26일 완도군에 따르면 해변 포도는 지난 21일 처음 출하돼 본격적인 수확에 들어갔다.

해풍, 해무를 맞고 자란 해변 포도의 당도는 15.2브릭스로 다른 지역 포도(14.8브릭스)보다 높다는 게 완도군 설

명이다. 기능성 물질 안토시아닌도 평균 1.30mg으로 일반 포도(1.13mg)보다 높다는 연구 용역 결과가 있었다.

완도 해변 포도는 시설재배의 경우 이달 20일 전후 수확에 들어갔고 노지 재배는 다음달 20일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완도=정은조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급 매”

광양, ㄷ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중동 락희호텔 근처
- 6층 중 4층 전체, 2012년 신축
- 210평 (실평 147평)
- 모든업종 오픈 가능
- 감정/시세 - 13억
- 매매 - 7억 8천만원 (조정가)
- 주인직매
- H,010-3605-5000

전원주택토지

- 장성군 동화면 남산리 1073-7
- 대지128평, 계획관리지역
- 문화마을 전원주택내 위치
- 첨단에서 20분 거리
- 현, 36세대중 25세대 거주
- 전기 수도등 기반시설 완비
- 매매 - 평당 70만원
- 주인직매
- H, 010-3605-5000

나주, ㄷ 상가주택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대지42평, 건물24평, 창고15평
- 농협/주유소 바로 앞
- 대로변 접합, 위치 좋음
- 급매 - 5200만원
- 주인직매
- H, 010-3605-5000